

## “8연속버디쇼…감 잡았어” 후반기 고진영시대 GO!

▶10면

고진영이 13일 제주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199타로 우승을 차지한 고진영은 올 시즌 국내투어 12번째 출전 만에 거둔 첫 우승이자 KPGA 개인 통산 8승째를 올렸다.



고진영



오재원 9회말 2사만루 끝내기 안타 두산 오재원(가운데)이 13일 잠실 NC전에서 비디오 판독 끝에 끝내기 내야안타로 결승점을 뽑은 뒤 동료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장철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 ‘흥행운전사’ 송강호의 힘

‘택시운전사’ 800만명 근접…초대박 영화 예고  
‘효자동’ ‘밀정’ 등 근·현대사 연작 흥행 릴레이  
“아픈 역사에 담긴 고귀한 진실 알리고 싶었다”

배우 송강호가 근·현대사를 다룬 주연영화로 어김없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가 스크린에서 그려낸 근·현대사의 아픈 사건과 인물들의 드라마틱한 삶을 향한 관객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엿보이는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택시운전사’ 관람에 앞서 송강호와 유혜진을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청와대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감독 장훈·제작 더랜프)는 13일 누적관객 750만 명을 넘어 800만 명에 근접했다. 개봉 2주차 주말의 토요일인 12일에는 1410개 스크린에서 70만6908명을 동원하며, 식지 않는 열기를 증명했다. 광복절이 맞물린 14일과 15일을 지나면서 1000만 관객 돌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택시운전사’는 송강호가 최근 몇 년간 주력해온 ‘근·현대사 연작’ 선상에 있는 작품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겪은 이른바 부림사건을 모티브 삼은 2013년 주연영화 ‘변호인’으로 1135만 관객을 동원한 송강호는 지난해 일제강점기 일본경찰 광우의 폭탄사건 실화를 극화한 ‘밀정’으로 또 한 번 750만 관객 흥행을 이뤄냈다.

이미 2004년 ‘효자동 이발사’를 통해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 12·12군사반란을 몸소 겪는 이발사를 연기하며 근·현대사에 우회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송강호는 최근 5년간 잇달아 3편을 완성하며 ‘연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택시운전사’는 홀로 말을 키우는 택시기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취재차 서울에 온 독일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향해 겪는 일을 그렸다. 19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씨와 그를 태운 택시기사 김사복 씨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화했다.

충무로의 거의 모든 제작진이 캐스팅 1순위로 꼽는 송강호는 ‘택시운전사’ 시나리오를 읽고 “과연 그 시대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 한 번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야기가 시종 머리를 떠나지 않아, 다시 제작진에 연락해 결국 출연제안을 수락했다.

그렇다고 송강호가 일부러 근·현대사 소재 영화에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아픈 역사로 희생당한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작품으로나마 진정성 있게 담아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자신의 가치관을 밝혔다.

한편 ‘택시운전사’의 뜨거운 화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관람 후 송강호와 유혜진, 장훈 감독 등 영화에 출연한 배우와 감독,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망인 에텔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환담을 나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직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면서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 데 큰 힘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변호인’, ‘밀정’에 이어 ‘택시운전사’까지 송강호가 근·현대사 소재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을 거두고 있다. 과거의 아픔과 그를 그려내는 송강호에게 관객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 쇼박스

## 46일만에 9.5게임차 뒤집기 독심의 두산, NC 잡고 2위

무서운 상승세…1위 KIA에 6게임차 추격



13일 잠실 맞대결은 3위 두산이 0.5게임차로 2위 NC를 추격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늦여름, 두 팀이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NC는 1위 KIA와 선두싸움이 뜨거웠고 두산은 5강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NC와 두산은 한 때 최대 9.5게임차까지 벌어져 있었다. 6월 28일 NC는 47승27패1무 승률 0.635로 KIA와 같은 승률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었다. 반면 두산은 36승35패1무, 승률 0.507로 간신히 5할 이상 승률을 지키며 5위로 떨어져 있었다. 9.5게임차는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격차로 보였지만 45일 만에 두 팀의 순위는 2~3위, 게임차는 반 게임이 됐다.

그리고 이날 두산은 9회말 짜릿한 2-1 끝내기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초반이었던 4월 5일 이후 130일 만에 2위로 뛰어 올랐다. 2017시즌 KBO리그의 포스트시즌 진출 순위는 이제 더 예상이 어려운 치열한 혼전으로 빠졌다.

양 팀은 NC 선발 장현식과 두산 선발 더스틴 니퍼트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7회까지 0-0로 맞섰다. 8회초 NC는 김경문 감독의 절묘한 스윙즈 번트 작전으로 선취점을 올렸다. 그러나 두산의 독심은 9회말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2번 류지혁이 안타로 출루 한 뒤 3번 박건우의 번트 실책이 있었지만 상대 실책으로 3루까지 내달렸고, 4번 김재환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동점에 성공했다. 이어 5번 에반스의 안타, 6번 양의지의 몸에 맞는 공으로 1사 만루가 됐다. 7번 민병현이 삼진을 당하면서 이어진 2사 만루, 8번 오재원은 볼카운트 1B-1S에서 NC 세 번째 투수 시속 151km의 빠른 공을 유격수 쪽으로 때리고 1루로 전력 질주 했다. 3루 대주자 박세혁이 홈을 먼저 밟았고 NC 손시현이 1루로 빠르게 송구했지만 오재원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혼신을 다했다. 최종 판정은 아웃이었던 7번7초 동안 이어진 비디오 판독 끝에 다시 세이프 판정돼 경기가 끝났다.

두산은 시즌 초반 선발 투수 마이클 보우덴의 부상 등 여러 악재 속 4월 12일 8위까지 추락했다. 전반기도 5위로 마쳤다. 그러나 주축 전력의 부상 속에서 젊은 선수들을 키워냈고 후반기 가파른 상승세 속 9.5게임차까지 벌어진 NC까지 추격하며 반게임 앞선 2위로 뛰어 올랐다. 1위 KIA와는 이제 6게임차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6면

장철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15일(광복절)자 신문 쉽니다. sportsdonga.com 뉴스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리법 제 2017-02277호(2017.05.23)

개수 제한과 부족한 보장금액의 아쉬움을 넘어드릴 새로운 차해보험을 알려드립니다

라이나생명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NAVER 라이나생명다이렉트

## 개수의 부담을 줄인 보장! 든든한 보장금액! 합리적인 보험료로 더욱 새롭게! 라이나생명(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 개수 제한 없이! 재료구분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도제(세라믹), 티타늄 개량 13만원, 레진 등 개량 5만원, 아말감 개량 1만원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씌우는 크라운 치료 보장  
- 크라운치료 20만원 (유치, 영구치 각각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도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보장  
- 임플란트 70만원, 브릿지 35만원 / 틀니 연 1회 70만원(특약 가입 시)  
- 특약: 0세~55세 가입가능, 가입나이 56세~70세 고령은 주계약만 가입가능하며, 임플란트, 틀니는 50만원, 브릿지는 25만원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 영구치 발치 1개당,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틀니: 보험돌당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영구치 발거 후 그 지리에 치료 시 정액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꾸준히 받아야 하는 소액치료는 더욱 새롭게!  
- 개수 제한 없는 신경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잇몸치료 / 스케일링 연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총차나 잇몸 치료 시 정액 보장  
- 잇몸질환치료 및 스케일링 : 국민건강보험 혜택 또는 의료급여형에 한함
- 모든 보장 받아도 만기지급금 50만원 지급(만기 생존 시)  
● 0세~70세까지 온가족 가입 가능(특약은 0세~55세까지 가입 가능)

### [보험료 예시표]

| 40세 기준          | 남자      | 여자      |
|-----------------|---------|---------|
| 주계약             | 31,000원 | 26,300원 |
| (무)보통치아보험(프리미엄) | 4,480원  | 2,780원  |
| 합계              | 35,480원 | 29,080원 |

\*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무)보통치아보험(프리미엄) 2,000만원  
보험기간 : 10년간, 납입기간 : 전기간 월납, 주계약(만기지급형), 특약(만기지급금)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 주계약 0세~70세 / 특약 0세~55세 / 가입나이, 연령에 따라 보험료는 변경 가능

### [해지환급금 예시표]

| 계약기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425,760원   | 0원       | 0.0%  |
| 3년   | 1,277,280원 | 4,529원   | 0.3%  |
| 5년   | 2,128,800원 | 278,267원 | 13.0% |
| 10년  | 4,257,600원 | 500,000원 | 11.7% |

\* 기준 : 40세 남자, 10년 만기, 전기간 월납, 주계약(만기지급형), 특약(만기지급금)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금액 : 주계약 4,500만원, (무)보통치아보험(프리미엄) 2,000만원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적을 수도 있음

\* 위 보장 내용은 차이유(소득/소득, 차주(정액/영수증))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치료에 한해 100% 보장됩니다 (다량의 연세/건강/약간 약관 참조)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059-9000

●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 본 상품은 10년 만기 기생형 상품으로 전 기간 월납, 주계약은 만기지급형,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며,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적을 수 있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또는 전보보통치아보험이 체결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전지 사항을 어긋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라며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공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산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